

마츠 에크(Mats Ek)의 작품 구조에 대한 분석과 해석

-「왓 워먼 Wet Woman」을 중심으로-

김혜라*

I. 서론	V. 결론
II. 작품 구조에 대한 지각의 문제	참고문헌
III. 마츠 에크의 작품 성향	Abstract
IV. 「왓 워먼」의 구조 분석과 해석	

1. 서론

현대 춤 감상의 어려움은 단순해 포착하기 어려운 의미와 정서적 모호함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주요 요인으로 현대 춤의 은유적, 추상적 그리고 복잡한 형식적 표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층적인 표현 방식에서 춤의 감성적인 정서는 어떻게 포착될 수 있으며, 미적 경험은 어떠한 토대에서 이루어지는가? 또한 춤에 내재된 다양한 이미지와 사유를 어떤 방식으로 의미화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춤을 이해하는 한 방식으로, 춤 구조에 대한 분석적 시각으로 춤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여 해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춤 작품의 이미지는 일련의 지각과 인식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표상을 느낀다. 작품 이미지는 전체상(像)에 대한 의식으로서 정서적 표현까지 지각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지각은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현상과 관계된 사고과정(思考課程)의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서 표상이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서 지각되고 그에 따르는 생리적 변화를 수반하는 복합적 상태를 갖게 되어 환

*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kimhyera1@naver.com

경과 특정한 형태의 만남을 통해서 표출 된다”.¹⁾

현대 춤에서 정서 표출은 인간의 몸을 통해 독창적인 안무양식과 첨단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표현들로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몸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대 춤 형식은 무대에서 시각 이미지가 강조되어 몸과 움직임의 이미지를 통하여 사유의 확장과 정서를 매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움직임이 단순한 감정 전달의 매체를 넘어 근본적인 사유를 담아내는 본질적 의미에 대한 반성적인 사고로 해석됨을 알 수 있다. 즉 몸과 움직임의 표현성이 사유를 매개하고 그 매개는 정서적 경험을 통하여 감지되는 경로를 거치는 것이다.

춤은 신체를 통해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고 해석의 과정을 통하여 작품의 특징과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작품의 특징은 시각적인 외형과 효과를 통해 우선적으로 인지되며 그 외형적인 느낌들과 결합들은 어떤 인식 가능한 효과, 결과, 조합 및 주요성을 산출하고 그 중 일부는 분위기를 만들게 된다.²⁾ 이 모든 결과가 어떤 인상과 이미지를 생성시키는 요인으로써 춤을 구성하는 요소와 구조에 대한 이해는 춤 해석에 필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춤 작품의 이해는 작품 구성 요소들의 특성을 인지하는 미적 경험이기도 하며 춤 작품의 구조는 춤꾼, 움직임, 공간, 시간 그리고 시각적인 효과를 이루는 무대장치의 매체적 특성에 의해 구성된다. 이러한 매체들의 구조적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과 그 근거는 작품 매체들의 유기적인 관련이 작품의 표현적 성격과 정서 그리고 사상을 구현하는 토대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예술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 작품의 형식과 연관관계를 통해 그 의미를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연구자는 난해한 현대 춤의 의미는 감상자의 적극적인 개입과 해석을 통하는 것으로서 현대 춤의 이해가 결과물 중심의 의미부여 보다는 작품의 시각적 과정에서 생득되는 미적 생기(生氣)의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미적 경험은 심상의 문제와 결부되므로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형태와 구조를 통해 움직이는지 그 요인을 찾아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작품 해석이 이뤄질 때 작품의 전체적인 의미가 선명해질

1) 김정희(1995), 『정서란 무엇인가』(서울: 민음사), p. 12.

2) 자넷 애드워드 편(1988), 『무용 분석의 이론과 실제』, 신상미(역)(서울:현대미술사, 1996), p. 126.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체 작품 형식에서 포착되는 구조적 성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된 내용을 근거로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다시 말해 가시적으로 포착되는 주요 형태적 관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춤에 대한 개념적 가치평가를 하기 위한 전 단계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의미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던 가시적인 춤의 현상적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론과 개념이 우선된 춤 분석이 아닌 춤 그 자체의 성격과 정서적인 현상을 강조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마츠 에크의 작품을 선정한 이유는 이미 그는 고전 발레의 전형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전통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논쟁을 몰고 다니는 안무가이며, 고전발레의 전형적인 기교와 구도를 재구성하여 관객의 선입견을 깨뜨리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다. 그는 19세기 발레의 인물이 아니라 동시대의 이슈로 동시대의 관객에게 살아있는 인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³⁾ 따라서 그의 작품에서 감지되는 정서적 이미지와 동시대적 문제의식이 어떤 형식구조를 통해서 가시화 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다.⁴⁾ 특히 국내외의 연구가 마츠 에크의 고전 발레의 재해석된 부분에 집중한 반면 그의 심리적이며 감성적 표현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작품에서 감지되는 춤의 정서적 측면을 현상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기존의 춤과 몸에 대한 개념적 연구를 실제 춤 분석에 실천하

3) Martha Bremser(1999), *Fifty Contemporary Choreographers*, Routledge, p. 145.

4) 다음의 논문들은 마츠 에크의 작품에 대한 선행된 연구이다. 고전발레에 대한 재해석의 시각으로 페미니즘, 사회이론, 심리이론, 라반 동작분석법을 통한 시각으로 작품을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선행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개념적 가치평가 이전에 몸으로 감지되는 본성, 다시 말해 현상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박정자(2004), 마츠 에크의 작품에 나타난 재창작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배진희(2005), 마츠 에크의 작품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페러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권동영(2007), 심리학적 접근에 의한 매튜 본과 마츠 에크의 백조의 호수의 비교 연구, 성균관대 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소민(2007), 마츠 에크의 작품에 나타난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지은(2008), 마츠 에크 재창작 춤에 나타난 상징성 연구-백조의 호수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은선(2008), 마츠 에크의 작품에 나타난 연극성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의숙(2005), 유희 개념의 시각으로 본 마츠 에크의 백조의 호수, 『대한무용학회논문집』 제 44호.

여 본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작품에서 지각되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그 이미지를 구성하는 부분적인 요소들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분석된 내용을 다시 전체 형태적 특징과 표현적 특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총합하여 재맥락화 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적 내용을 근거로 그의 작품 성향과 기질 그리고 문화적 조건과 관계하여 해석할 것이다.

II. 작품 구조에 대한 지각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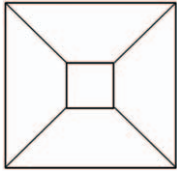
예술작품을 포함하여 사물이란 것은 관련된 적합한 방식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때 대상은 어떤 범주와 바라보는 어떤 방식, 곧 지각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올드리치(Aldrich)는 대상을 지각하는 것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인지되는 지각방식인 “관찰”(observation)과 미적공간에서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감지”(prehension)로 구성된다고 하였다.⁵⁾ 이러한 이론을 적용시키면 예술작품에 대한 감지는 미적지각에 의해 단순히 관찰된 현상의 경험이 아니라 미적인 경험인 것이다. 그렇다면 미적경험을 충족시키는 미적인 특성을 드러내주는 종류의 지각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종류의 지각이라는 것이 충족시켜 놓고 있는 조건들⁶⁾이 무엇인가? 올드리치는 미적 경험이 일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며 이는 미적인 것의 특수한 이해⁷⁾로

5) 버질 C. 올드리치(1963), 『예술철학』, 오병남(역)(서울:서광출판사, 2004), p. 57.

6) 벌로프(E. Bullough)는 심적 거리에 관한 그의 논문에서 주관적인 실제적 관심으로부터의 일탈이라는 생각과 그리고 흔히 주관적이라는 우리의 정감(affection)적 행동을 유발하는 내적인 동기로서가 아니라 밖에 있는 대상의 객관적인 특성으로 경험한다고 한다. 미적 대상의 근원적인 의미는 대상과 나와의 거리의 문제 즉, 어떤 대상을 미적으로 볼 수 있는 심리적인 거리와 태도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현상에 대한 바라봄이 일정한 거리와 심리상태에서 관조적으로 봐야함을 의미한다.

7) 미적지각, 미적경험을 중심으로 대상(예술작품 혹은 미적 대상의 본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미적 태도로서의 이해이다. 이와는 반대로 조지 디키(G. Dickie)는 미적관조의 차원을 비판하며 예술에서 해석의 자율성이 대상의 본질에서 미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미적인 것은 예술계에서 수여받은 체계적인 것이라는 입장으로, 위의 경우와는 반대되는 태도이다(조지 디키(1966), 『미학입문』, 오병남·황유경(공역)(서울:서광사, 2003), pp. 138-150).

써 대상의 국면들 즉, “국면화”(aspection)된 변화로 미적지각 방식을 설명한다.⁸⁾



〈그림 1〉

예를 들어 〈그림 1〉은 틀 속에 매달린 정사각형으로 보일 수도 있다. 또는 위에서 내려다본 전등갓으로 볼 수 있다. 아니면 밑에서 올려다본 전등갓, 터널을 들여다본 것 혹은 절단된 피라미드의 조감도 등으로 보일 수 있다. 이와 같이 물리적 대상이란 보는 방법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하며 이는 단순한 사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각하는 것이다. 위의 도형이 전등갓으로 보이는 것은 대상의 구조를 통해 전등갓의 이미지가 지각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험은 대상의 구조를 통해 변화된 구조물로 보이는 국면화에 의해 변화된 형상이 대상에서 인지되는 것이다. 물론 다른 지각자는 이러한 객관적인 인상을 통해 〈그림 1〉의 형태를 전등갓이 아닌 다른 형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의 예시 같이 예술 작품도 대상의 본래적 성질이 변화된 어떤 것 즉, 국면화 된 어떤 것의 지각을 통해 미적경험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작품을 본다는 것은 대상의 이미지를 재료에 투영시켜 놓는 일이 아니라, 미적 대상으로서의 재료가 어떤 이미지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올드리치는 예술작품의 표현적 묘사라고 설명 하였으며 그것은 예술작품에 표현적으로 묘사된 주제는 무엇을 보여주는 형식적인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형식적인 내용은 단계별로 표현되며 미적 공간에서 매체의 요소들이 전개되는 형식 즉, 형식화된 매체를 통해 실현된 내용이나 혹은 이미지의 패턴(pattern)으로서의 형식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면 두려워 웅크리고 있는 인간의 형상은 매체 간 요소들의 배열과 내용의 패턴이 전체적인 구성(composition)을 형성한 형식에서 포착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작품의 주제와 내용이 작품 자체의 객관화된 형식구조에 근거하며 미적지각은 작품의 현상을 생기 있게 지각하는 활동인 것이다. 이러한 올드리치의 논의의 핵심은 예술작품의 내용이 객관적인 형태 구조의 국면화에 대한 지각적 감지를 주장하는 것이며 객관적인 형식의 지각이라는 봄의 문제는 춤에서 작품을 보는 문제와 이해하는 일과도 연속선상으로 결부된 일이라는 것이다.

8) 올드리치(1963), pp. 58-65.

따라서 춤을 해석하는 일은 우선적으로 춤 현상을 지각하는 것으로, 작품의 특성은 작품 전체의 형식과 구조 그리고 상호관계의 복합성을 통하여 지각되는 것이다. 즉 춤 분석은 작품의 특징, 그것의 주제, 그 소재를 다루는 방식 그리고 그것이 담고 있는 특성들이 모두 이해되는 것을 요구한다.⁹⁾ 따라서 작품의 의미, 즉 춤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함은 춤을 구성하는 매체들을 잘 이해해야 가능한 것으로 춤 시공간에서 지각적 감지를 통해서 전체 형식 구조를 포착하고 이를 토대로 의미의 상관관계를 해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III. 마츠 에크의 작품 성향

1. 안무가 소개

스웨덴 출신의 마츠 에크(Mats Ek, 1945~)는 배우인 아버지(앤덜스 에크, Anders Ek)와 쿨베리 발레단(Cullberg Ballet)의 안무가였던 어머니(비르지트 쿨베르그, Birgit Cullberg)로 인하여 예술적인 환경¹⁰⁾에서 자신만의 감각을 키울 수 있었다. 그는 1965년 도냐 포이어(Donya Feuer)에게 춤을 접하게 되었고, 1966년 마리버그 칼리지(Mariebergs College)에서 연극 연출을 전공했다. 그는 1966년부터 1973년까지 마리오네트 극장(Marionett Theatre)과 로얄 드라마 극장(Royal Dramatic Theatre)에서 배우 겸 감독으로 활동하였다. 그의 첫 작품¹¹⁾은 연극 ‘보

9) 자넷 에드워드 편(1996), p. 32.

10) 마츠에크는 발레단을 운영하는 어머니로 인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춤 환경에 노출되었다. 여덟 살 때 어머니가 안무한 「메디아 *média*」란 작품에서 쌍둥이 누이들과 참여적 적이 있으며, 후에 1973년 발레단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은 어머니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심정민(2011), 『춤을 빛낸 아름다운 남성 무용가들』(서울:북소컴퍼니), pp. 98-99.)

11) 그의 대표적인 레파토리는 다음과 같다. 「세인트 조지 앤 드라곤 *Saint George and the Dragon*」(1976), 「소웨토 *Soweto*」(1977), 「더 하우스 베나다 알바 *The House of Bernarda Alba*」(1978), 「사계절 *The Four Seasons*」(1978) 「안티고네 *Antigone*」(1979), 「유년의 기억들 *Memories of Youth*」(1980), 「어 갓 디스가이즈드 *A God Disguised*」(1980), 「카인과 아벨 *Cain and Abel*」(1982), 「지젤 *Giselle*」(1982; later staged for television), 「맨 앤 히스 윈도우 *Man and his Window*」(1983), 「봄의 제전 *Rite of Spring*」(1984), 「그레이스 *Grass*」(1984), 「엘스타드 *Eldstad*」(1985), 「파 노보텐 *På Norrbotten*」(1985), 「그라스 *Gräs*」(1987), 「백조의 호수 *Swan Lake*」(1987),

위체크' (Woyzeck)를 소재로 한 「장교의 하인 *St George and the Dragon*」(1976)으로 인형과 배우가 출현하는 인형극 형식의 안무를 하게 되었다. 1972년 늦은 나이에 스톡홀름(Stockholm) 발레 학교에서 춤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1976년에 쿨베리 발레단의 예술 감독이 되었다. 그 이후로 고전 작품을 재해석한 마츠 에크의 쿨베리 발레단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는 1993년 쿨베리를 떠나 세계 각국의 무용단에서 프리랜서(free-lancer)로 작업하고 있다.

2. 안무가의 주요 작품 성향

그의 주요 작품 중 고전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파격적으로 재해석한 두 작품의 표현 방식을 보고자 한다. 「지젤」(1982)에서는 〈사진 1〉의 청순한 시골소녀의 사랑이 아닌 〈사진 2〉의 정신병동에 수용되는 충격적인 사랑의 결말을 전개함으로써 사랑의 배신으로 피폐해져가는 인간 상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원자¹²⁾이 초현실적인 가련한 지젤의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었다면 마크의 지젤은 사랑을 얻기 위한 집착성과 성적인 동작도 주저하지 않는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라이크 안티고 *Like Antigo*」(1988), 「감라반 *Gamlabarn*」(1989), 「오버 데이얼 *Over There*」(1990), 「라잇 비긴 *Light Beings*」(1991), 「저니 *Journey*」(1991), 「올드 맨 도어 *Old man Door*」(1991), 「카르멘 *Carmen*」(1992; staged for television, 1994), 「포인레스 패스츄어 *Pointless Pastures*」(1992), 「단스 메드나스텐 *Dans mednästen*」(drama/dance work, 1993), 「웻 워먼 *Wet Woman*」(solo, 1993; video, 1995), 「쉬 워즈 블랙 *She Was Black*」(1995), 「스모크 *Smoke*」(1996), 「슬리핑 뷰티 *Sleeping Beauty*」(1996), 「솔로 포 투 *Solo for two*」(stage version of smoke, 1996), 「어 쏿 오브 *A sort of*」(1997), 「파 말타 *Pâ Malta*」(drama/dance work, based on Christopher Marlowe's play *The Jew of Malta*, 1996), 「요하나 *Johanna*」(drama/dance work, 1998), 「돈 주앙 *Don Juan*」(drama/dance work, text by Molière, 1999), 「아파트먼트 *Appartement*」(1999; also for Paris Opera, 2000), 「안드로메 *Andromaque*」(2002), 「플럭 *Fluke*」(2002), 「튤립 *Tulips*」(2003), 「메모리 *Memory*」(2005), 「알루미늄 *Aluminium*」(2005), 「더 매상 오브 베니스 *The Maechant of Venice*」(drama/dance work, text by Shakespeare, 2005), 「스탈르 *ställe*」(2007), 「디 아더 *The Other*」(2009), 「카시-카사 *Casi-casa*」(2009)가 있다.

12) 1841년 데오빌 고펜에(Théophile Gautier)의 대본, 장 코랄리(Jean Coralli)와 쥘 페로(Jules Perro)의 안무, 아돌프 아당(Adolphe Adam)의 음악에 의해 초연되었다. 원작의 지젤은 청순한 시골처녀와 신분 높은 왕자와의 사랑이야기이다. 왕자와의 사랑의 결말이 죽음으로 이어지고 왕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희생적인 여인상을 보여준다.



〈사진 1〉 「지젤」(1841)



〈사진 2〉 「지젤」(1982)



〈사진 3〉 「백조의 호수」
(1875)



〈사진 4〉 「백조의 호수」
(1982)

마크 에크의 지젤은 원작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으며 낭만적인 환상이 아니라 불안정한 인간 내면의 속성을 사실적으로 극대화하여 현실적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크의 지젤은 “한 시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획기적인 작품으로 평가”¹³⁾되고 있다.

「백조의 호수」(2003)는 〈사진 3〉의 가냘프고 우아한 백조가 아니라 〈사진 4〉의 모습같이 대머리에 근육질 몸을 당당히 드러내는 맨발의 백조로 재탄생된다. 마크의 백

조는 원작¹⁴⁾의 왕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수동적이고 전형적인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나약한 왕자의 자아정체성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강인하고 열정적인 여성으로 묘사된다. 이와 같이 마크 에크의 백조의 호수는 동시대의 인물로 변모하여 실존적 인간의 나약함과 강인함 그리고 절대적인 흑백논리가 아닌 양면성을 가진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마크 에크의 고전의 전형을 전복시킨 재해석된 인물의 과감한 설정과 스토리 구성은 그의 확고한 예술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동시대적 인물의 성격이 살아있어야 하며 분명한 내적 정서와 대비되는 감정에 대한 기술을 강조하는 것이다.¹⁵⁾

13) www.artsalive.ca, Meet the artists, Mats Ek Biography 편.

14) 1877년 벤젤 라인징거(Wenzel Reisinger)의 안무로 볼쇼이 극장에 (Bolshoi Theater)서 초연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1895년 마리우스 프티파(Marius Petipa)와 레프 이바노프(Lev Ivanov) 안무, 차이코프스키(Tchaikovsky) 음악으로 상트 피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 마린스키 극장(Mariinsky Theater)에 올려져 성공을 거두고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마법에 걸린 백조는 강인한 왕자에 의해 구해지고 해피엔딩의 결말로 마무리 되는 동화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5) Mats Ek(1993, Novara 13), “Giselle di Mats Ek, I grandi protagonisti della danza”, E. Vaccarino(ed.).

마츠 에크는 고전의 전설과 동화의 힘은 선과 악, 이성과 광기, 잔인성과 연민 사이의 이중성의 잠재력을 믿음으로서 「지젤」,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 속의 미녀」등을 자신만의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킨 것이다.¹⁶⁾ 이와 같이 인간 심연의 정서와 동시대 감성을 대변하는 그의 작품은 관객에게 생생한 미적 경험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장(field)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장은 본격적으로 「왓 워먼」(1993)에 대한 작품 구조 분석을 통해서 정서 표현을 이해하고자 한다.

IV. 「왓 워먼」의 구조 분석과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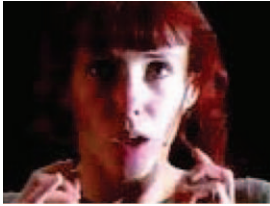
1. 작품의 구조적 분석

이 작품은 고란 웨스트럽(Goran Westrup)의 조명과 플라카라테튼(Fläskkrartetten)의 음악으로 6분이 소요되는 실비 길렘(Sylvie Guillem)의 솔로(solo)춤이다. 구체적으로 이 작품에서는 춤꾼의 감정변화를 보여주는 얼굴표정과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몸과 움직임의 관계가 주로 주목된다. 다음으로 상징적으로 제시된 책상과 물줄기를 통한 움직임 관계와 감정 흐름의 변화에 따른 극적 매개체로 지각된다. 따라서 이 작품의 중심적 구조 분석은 ‘움직임과 내적 정서의 표현’이라고 설정하여 부분적인 특징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 부분적 특징 / 공간에서 감정과 움직임의 관계

먼저 실비 길렘의 얼굴 표정과 움직임은 상반되게 지각된다. 〈사진 5〉에서와 같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는 놀란 표정의 얼굴이 도입부의 암울한 분위기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춤꾼의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 포착된 현상은 책상에 맞닿아져 있는 춤꾼의 신체 각 부위이다. 다시 말해 춤꾼 몸과 책상의 관계에서 변화하는 감정을 움직임의 조합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음악의 변주와 함께 감정을 드러내는 마음적 표현(몸통 흔들기, 자신의 몸과 책상 만지기 등), 책상의 예측에서 벗어나려

16) Jann Parry(1999. August 15), “By Ek, it’s all very surreal”, The Guardian.



〈사진 5〉 「옛 워먼」



〈사진 6〉 「옛 워먼」

는 강한 힘의 움직임(에티튜드 회전, 그랑 제떼, 티드 백 킥 등)이 반복된다. 더불어 마음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순간 정지와 아울러 〈사진 6〉

과 같이 부자유한 심리를 드러내는 바닥에 주저앉음과 책상에 엷힌 신체 부위는 하나의 시퀀스(sequence)로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바꿔 말하면 사실적 감정을 드러내는 얼굴표정과 예측된 상황을 벗어나려는 춤 동작이 시간차로 진행되며 몸이 책상 반경을 차츰 차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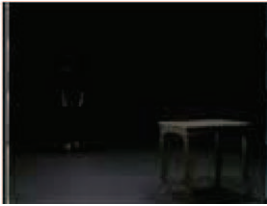
두 번째로 작품 중반부에 와서는 감정과 움직임의 관계가 합체되어 지각되는데 물줄기를 통해 온 몸이 적셔지고 어떤 의지의 힘은 책상을 부스면서 상황을 전환시키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발레와 현대 춤 동작이 배타적이지 않게 융합되어지면서 실제 감정 상태를 보여주는 힘의 조합을 이루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강력한 힘을 표현하는 발레 동작에 이어 관절의 힘을 풀어 무게 중심이 바닥으로 낙하하듯 처지는 동작 그리고 순간 정지되는 아라베스크 같이 전체적인 움직임 구성이 단계별 의미 있는 프레이즈(phrase)로 지각된다. 다시 말해 춤꾼 감정의 요동과 저항의지의 표현을 드러내는 움직임 질과 흐름의 구성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춤꾼의 얼굴과 몸은 더 이상 책상에 예측된 몸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지의 움직임으로 표현된다. 춤꾼의 완벽한 테크닉이 강조되는 장면의 연속적인 시퀀스의 반복이 그것인데 동작의 범위와 에너지 흐름은 탄력적 속도감에 맞게 밖으로 뻗어 있다. 긴 팔다리의 시원한 점프와 도약은 변화된 표정과 함께 전체 공간의 분위기를 열정과 환희의 공간으로 변하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부분적 특징 / 공간에서 오브제의 관계

이 작품에서 춤꾼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매개하는 것은 책상과 물줄기이다. 〈사진 7〉은 첫 장면으로 책상과 춤꾼의 관계가 배타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춤꾼의 움직임과 표현이 책상에 연계된 상황이 진행되고 부자유스러운 분위기는 책상이 주요인임

www.kci.go.kr



〈사진 7〉 「옛 워먼」

을 금방 움직임에 의해 잃게 해준다. 이렇듯 책상 다리에 몸이 휘감기고, 몸이 매달리고, 다리 밑으로 들어가는 등 사실적인 몸짓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책상이 부서지자 집중되지 않았던 텅 빈 공간의 의미가 구속이 없는 공간으로 변하게 되고 그 사이 물줄기는 춤꾼을 독려하는 힘이며 상황의 전환을 매개하는 오브제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춤꾼의 심리적인 상황과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상징으로 오브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 전체 형태의 구조적 특징

이 작품의 전체 형태구조를 움직임 표현으로 재조합하면 다음과 같다. 도입부는 책상에 예측된 소극적이며 내향적 움직임의 진행과 중반부의 춤꾼의 감정과 저항의지의 표현을 사실적인 마임과 눈빛 변화로 드러내었고 종말부에선 어떤 구속에서 해방된 상황을 표현하는 외향적인 움직임 구성으로 극적인 감정과 상황의 변화를 움직임의 시퀀스를 통해서 읽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재조합된 움직임의 지각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었다.

첫째,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눈빛, 강한의지와 밝아진 표정을 드러내는 움직임들과 오브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극적 감정변화를 지각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유기적 지각의 주요인은 몇 개 동작이 하나의 프레이즈로 단순화 되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움직이는 힘의 가동범위는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강한 긴장을 주는 동작과 힘을 풀어주는 동작 그리고 사실적인 몸짓 표현이 반복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중력을 거부하는 아랫배와 갈비뼈에 힘을 모으는 강한 긴장이 요구되는 동작과 힘, 중력에 순응하는 몸통에 힘을 모으고 양 팔다리의 힘을 푸는 동작 그리고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실적 몸짓이 한 프레이즈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 오브제를 매개로 한 현상적 상황은 드라마틱한 극적 요소를 강조하며 같은 동작의 의미를 다르게 지각하게 한다. 바꿔 말하면 비슷한 프레이즈로 변화하는 동작의 의미가 달리 지각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도입부에서 책

상에 예측된 도약과 책상이 부서진 후 도약의 의미는 다르게 지각된다. 같은 맥락으로 도입부의 터덜터덜한 걸음과 마지막의 걸음도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요약하면 전체 맥락의 극성과 감정적 변화의 상황을 통해서 춤꾼의 유사한 움직임과 힘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세 번째, 도입부에서는 이 무대에서의 춤꾼의 몸, 완벽한 테크닉, 책상이 주목되지 못하는 공간적인 형태의 의미는 일차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책상이 부서지는 순간 비로소 무대 공간의 의미가 지각되어 수동적이었던 공간이 춤꾼의 립(lean)과 에너지가 시원하게 펼쳐지는 적극적인 의미 공간으로 지각된다.

마지막으로, 실비 길렘이라는 당대 최고 춤꾼의 몸의 느낌과 성격을 들 수 있다. 그녀의 눈빛과 표정은 연기가 아니라 실재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고 섬세한 감정과 움직임의 힘 조절은 그녀만의 노련하며 진솔한 신체표현에서 배어 나와 관객의 시각과 마음을 몰입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완벽한 몸과 테크닉이 내재된 춤꾼을 통하여 작품의 분위기는 진솔함과 깊이가 더욱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전체 구조의 표현적 특징

이 작품 전체의 표현성은 무언가에 예측된 암울한 분위기에서 드라마틱한 정서적 환희를 실비 길렘이라는 춤꾼의 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 작품의 분위기 전환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춤꾼의 눈빛과 몸짓의 변화가 책상이 부서지기 전 후의 맥락에 따라 명백히 달라진다. 둘째, 공간의 사용이 책상 주변부에서 춤을 추다가 책상이 부서진 후에는 전체 공간을 사용한다. 셋째, 움직임의 힘 조절이 책상이 있을 때에는 중력에 순응하는 무대 바닥과 몸통과 골반의 내향적인 움직임을

〈표 1〉 「옛 워먼」 구조적 성질

전체 작품에서 감지된 중심 이미지	움직임과 정서 표현 관계
각 매체의 부분적인 주요특성	공간에서 감정과 움직임의 관계
	공간에서 오브제의 관계
전체 형태의 구조적 특징	소극적이며 내향적 움직임, 사실적인 두려움의 눈빛과 마임, 외향적인 움직임
전체 구조의 표현적 특징	예측된 이미지에서 환희적 표현성의 분위기

주로 사용하였으나 물줄기에 적신 춤꾼의 몸과 책상이 부서진 후의 춤꾼의 움직임은 중력을 거부하는 몸짓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향적인 에너지를 중심으로 움직임이 더 길고 더 위로 솟는 힘과 흐름이 무대를 주도하며 전체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이다.

2. 작품 해석

위의 현상과 구조를 총합하여 볼 때 이 작품의 해석은 오브제를 통한 극적 상황과 정서적인 감정 변화를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실비 길렘의 사실적인 정서변화를 움직임의 힘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것은 마츠 에크 안무의 섬세한 감각과 움직임의 특성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그의 능력인 것이다. 이러한 감성이 묻어 있는 작품은 관객의 감정과 교감되고 이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가. 전체 형태의 구조적 특징(오브제와 정서 관계) 해석

이 작품의 중반부에 등장하는 책상, 춤꾼의 긴장감과 불편한 상황을 해결하는 물줄기는 춤꾼의 의식을 깨우는 오브제로 사용된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사용되는 한 두 방울의 물은 춤꾼의 얼굴에 떨어지는 순간 관객의 감성까지 촉촉하게 적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책상은 그의 작품에서 자주 사용하는 상징물로 <사진 8> 「알루미늄」과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리고 「스모크」에서도 책상은 일상의 삶을 상징하는 물체로서, 반면에 춤꾼들은 현실적 억압에 저항하는 몸짓으로 책상과의 관계를 설정 하였다. 마츠 에크는 이 작품에서 책상이라는 오브제를 고전의 작품들과 같이 사회적·성적·인종적 억압의 매개로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흐름을 제지하는



(사진 8) 「알루미늄」(2005)



「잠자는 숲속의 공주」(1996)



「스모크」(1996)

상징물로 제시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와 같이 무대의 극적 변화를 매개하는 물줄기와 책상은 개인의 내면을 억압하는 물질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책상에 저항적 의지를 표현하는 춤꾼 움직임의 질적 조합은 관객의 감정까지 이입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움직임의 고유한 힘이 오브제와 함께 극적 변화를 주도하는 주요인을 형성하고 있다.

나. 전체 표현적 특징(움직임과 정서 관계) 해석



〈사진 9〉 「옛 워먼」

이 작품은 실비 길렘의 진솔한 눈빛과 춤 고유의 힘으로 관객의 시선을 몰입하게 하는 긴장과 해방의 몸짓으로 극적상황에서 힘을 발휘한다. 바꿔 말하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정서를 눈빛과 표정으로 또한 보이지 않는 심리적 요동을 몸의 움직임의 힘 조절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녀의 몸에 내재된 기운과 자유자재로 끌고 가는 에너지는 그녀의 완벽한 테크닉이 바탕이 되고 있다. 〈사진 9〉에서의 그녀의 180도 이상의 도약과 점프는 작품 도입부의 암울한 긴장감이 아닌 환희에 찬 무언가로부터 해방된 긴장감을 명쾌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녀의 힘찬 움직임의 역동성이 관객의 내적 정서를 유발하는 일체감의 게슈탈트(Gestalt)로 그 표현적 의미를 생성시킨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며 다시 말해 에너지의 유동적 흐름과 춤꾼의 몸의 성격이 관객의 감정을 합치시킬 수 있는 주요인이 되는 것이자 작품과 관객의 감성이 신체로 생생히 인지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다. 「옛 워먼」의 해석 요인

「옛 워먼」은 실비 길렘의 사실적인 감정변화를 움직임과 그녀 자체의 정서적 힘으로 끌고 간 것이었으며 마츠 에크 안무의 섬세한 감각과 움직임의 특성을 이해하는 그의 능력이 입혀진 작품인 것이다. 움직임의 질적 흐름의 조합과 춤꾼 몸의 느낌과 호흡을 비롯한 감성적 일체감이 관객에게 심리적 해소와 감정적 교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품을 통한 정서교감은 춤의 고유한 기능이며 안무가는 이러한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춤꾼과 함께 자신의 섬세한 시각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오브제를 통한 극적 상황의 연출은 그가 연극 연출가로

활동했던 경험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그가 작업을 할 때 실재 배우를 출연시키거나 춤꾼들에게 연기를 지도한 점이 이런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유년시절부터의 예술적인 성장환경은 그가 발레동작의 장점과 한계를 분명하게 알게 하였을 것이고 움직임 표현에 대한 날카로운 감각과 이해를 부여했을 것이다. 이러한 성장과정과 경험에 힘입어 아마도 그는 ‘현대 춤의 유동적인 에너지 흐름, 발레의 강력한 힘의 발현, 마미적인 몸짓 언어’의 사실성을 드라마틱하게 구성하여 작품 주제에 맞게 그만의 언어로 재탄생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현시대의 사회적 이슈 중 중요한 문제는 인간 마음에 대한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작품은 극적인 오브제를 통한 연출 상황이 춤꾼 감정 표현과 함께 관객의 감성으로 매개되어 심적 거리감을 극복한 특질을 갖고 있으며 전통을 재해석한 작품처럼 스토리와 인물의 성격을 통하여 사회적인 억압이나 제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시원한 빗줄기와 물방울을 통해 관객의 내적 정서를 적시는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결과적으로 6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요동치는 심리적 변화를 오로지 춤꾼과 두 가지 오브제를 통하여 관객의 감성에 강한 자극과 심리적 해방감을 주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마츠 에크의 섬세한 감성과 실비 길렘임으로 더 돋보이는 작품으로 오로지 춤의 순수한 역동성과 심적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고양된 정서적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정서 경험의 해석적 가능성을 본 작품 해석을 통해 연구자는 제시한다.

〈표 2〉 「옛 워먼」해석 내용과 해석 요인

해석 내용	해석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인 카타르시스(catharsis)의 고양된 정서 교감의 가능성 • 춤꾼 몸에 내재된 에너지를 통한 환의의 감정적 경험 가능성 • 인간적인 몸과 춤 고유의 역동성 경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무가의 유전적 기질과 예술적 환경에서 드러나는 날카로운 움직임 분석력과 섬세한 감성 적 분위기가 해석의 근거 • 다른 작품의 오브제와 표현 방식의 유사성에서 동시대적 이슈와 표현적 성격이 해석의 근거 • 움직임과 몸에 집중된 범주에서 춤의 본질적인 현상과 기능으로 해석 가능성 제시

V. 결 론

본 연구는 현대 춤 작품에 대한 형식 구조분석이 다층적인 춤 현상을 이해하는 한 방법으로 유용할 수 있음을 마츠 에크의 작품 분석을 통해서 검증해보았다.

작품 구조 형태에 대한 지각의 문제는 올드리치의 논의를 수용하였다. 즉 작품의 주제와 내용이 작품 자체의 객관화된 형식구조에 근거하며 미적지각은 작품의 현상을 생기 있게 지각하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작품의 내용이 객관적인 형태 구조의 국면화에 대한 지각적 감지를 통해 전체 작품의 이미지와 의미의 상관성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과 방향으로 마츠 에크의 「옛 워먼」 작품의 표현적 특징과 매체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근거로 마츠 에크의 작품 성향과 그의 문화적 배경과 상호연관시켜 전체적인 의미를 해석하였다.

그 결과 「옛 워먼」의 형태 구조적 특징은 춤꾼 몸의 느낌과 움직임 흐름의 질적 형태를 통해 생생한 몸 정서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정서적 표현은 작품을 통해서 몸과 감정이 동일시된 정서변화의 현상적 측면으로 구조화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 공간에서 오브제의 상징적 의미와 시공간에서 유사한 움직임 시퀀스의 조합이 전체를 통해 다시 분석함으로써 의미가 달라 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작품 구조 분석을 근거로 작품을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춤꾼 감성과 관객의 감성이 이입되어 심리적인 카타르시스 경험 가능성을 제시 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춤꾼 몸에 내재된 에너지를 통한 감정 교감(환희)의 경험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몸의 생기와 춤 고유의 역동성의 경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옛 워먼」 작품은 “춤만의 온기와 몸 냄새의 향기가 물씬 풍기면서도 거침없는 몸 에너지의 진정성이 부각되는 작품”으로 총합적으로 해석 된다. 이와 같은 해석적 요인은 현대 춤의 낯선 요소(타 장르적 성격)들의 결합, 정서적 충격 그리고 냉소적인 표현성이 자연스러운 현대 예술의 상황에서 몸의 느낌과 움직임 흐름의 질감을 통해 생생한 몸의 정서가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타 예술 장르에 비하여 춤은 몸을 통해 직접적인 정서 경험의 장(Field)을 제공함으로써, 몸짓 언어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 분석과 상호 연관성을 통한 해석이 춤의 정서 경험을 구체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춤 구성 요소들의 구조 분석은 다층

적인 춤 현상의 이해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해석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예술 작품 해석에서 주관성이 배재할 수는 없으나, 가시적으로 지각되는 전체 구조의 객관적 분석이 현대 춤작품의 표현적 성격을 넘어 존재적 의미를 생성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경희(1995). 『정서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심정민(2011). 『춤을 빛낸 아름다운 남성 무용가들』. 서울: 북소컴퍼니.
- 버질 C. 올드리치(1963). 『예술철학』. 오병남(역). 서울: 서광사. 2004.
- 자넷 애드워드편(1988). 『무용분석의 이론과 실제』. 신상미(역). 서울: 현대미술사, 1996.
- 조지 디키(1966). 『미학입문』. 오병남·황유경(공역). 서울: 서광사. 2003.
- Martha Bremser(1999). Fifty Contemporary Choreographers. Routledge.
- Jann Parry(1999. August 15). "By Ek, it's all very surreal". The Guardian.
- Mats Ek(1993, Novara 13). Giselle di Mats Ek. "I grandi protagonisti della danza". E. Va6ccarino(ed.).
- www.artsalive.ca. Meet the artists. Mats Ek Biography.
- Mats Ek 「Wet Woman」(1993). DVD <http://balletoman.com>
- 사진출처. Bailarinaskitnet동영상.

논문투고일	2012년	2월	15일
심사일		2월	21일
심사완료일		2월	28일

Abstract

The Structural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Mats Ek's Art Work

- Focusing on 「Wet Woman」-

Hye Ra Kim

*Lecturer of Dance department
Sookmyung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suggests that structural analysis (Gestalt's analysis) can be a possible method to understand multi-layered dance phenomenon through Mats Ek's work as an example. The perception of the art's structural formation followed Aldrich's concept. Therefore, this study claim that art work's contents can be understand through sensing objective structural aspection as a connection and co-relation of the work's image and meaning. To accomplish study purpose, the author analyzed relation of character and cultural background of Mats Ek's 「Wet Women」to interpretate meaning of the art work.

First, The analysis of structure of 「Wet Women」separate major partial characteristics of whole works was done, then recombine the partial character to analyze whole structural and expressive formation. The total analysis results were reviewed and concluded the work's meaning.

As a results, the structural character of 「Wet Women」 was analyzed through the co-relation of feeling of performer's dance and the formation flow, which was vivid body performance. The basis of above interpretation were followed:

First, this study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the dancer's emotion and audience's one were brought together which made psychological catharsis. Secondly, the experience of emotional consensus might be generated through energy inside the dancer. Thirdly, the possible experience which give feeling of vividity of body energy and dynamicity of natural dance can be suggested. As a conclusion, 「Wet Women」 can be interpreted as the work give warm feeling and scent of body fully with direct authenticity of body energy.

Comparing other arts, dance give direct emotional experience through the

body in the stage, structural analysis of body language in the dance and interpretation of co-relation of it can present actual deep aesthetic experience to the audience.

Therefore, the analysis of consisting factors of the dance can guarantee right understanding of multi-layered phenomenon of dance and objectivity. The subjectivity in the art work's interpretation can not be excluded, however, the sensed total structural objective analysis can generate existal meaning of it which can overcome expressive character of modern dance.

keywords: Structure(구조), Analysis(분석), Interpretation(해석), Perception(지각),
Dance(춤)